

# 개념 수학을 듣는다



[개념 학습 0b]

듣는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 [ 고 3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jk9221/jk006445>
- [ 고 1~2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 [ 중 1~3 ]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 06 울정설

| 백문보

📍 핵심 정리

### 작품 개관

▶ **느림이 미학과 자연 생성 원리 그리고 인간의 삶의 이치!**

이 글은 밤나무의 성장 과정과 윤 공의 삶을 연결하여 자연과 인간이 동일한 이치 속에 있음을 강조한 '설'이다. 자연의 생성 원리를 통해 늦은 성장과 성취 또한 삶의 필연적 과정임을 드러낸다. 어려움과 쉬움, 빠름과 느림은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변화의 원리로 제시된다. 이를 통해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인간 삶의 태도와 성취를 이해하는 데 중요함을 강조한다.

윤 상군(尹相君)이 일찍이 **곤강(坤岡) 남쪽에 집터를 마련하였다.** 집터 동 윤 공이 거처하고자 한 지역 서쪽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밤나무 정자'라는 뜻으로 '울정(栗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윤 상군이 마련한 집의 공간 지금 또 조금 서쪽으로 가서 새로 집을 윤 공이 새로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하였다. 밤나무와 관련한 정자(글을 지은 계기) 성안에 있는 주택에는 밤나무를 집을 마련했는데 심는 사람이 드문데, 윤 공은 집을 사기만 하면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 다른 사람과는 다른 윤 공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 하였다.

▶ **윤 공의 밤나무를 선호하는 취향**

그가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이면 성근 가지가 꽃과 서로 어긋거리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으며, 가을이면 밤이 맛이 들어 내 입에 가득 채울 만하며, 겨울이면 껍질을 모아 내 아궁이에 불을 댈다. 나는 이 때문에 밤나무를 선택한다.” 계절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밤나무의 효용성을 말하고 있음.

내가 말했다.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촉촉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같은 기운 같은 기운은 가진 것끼리 움직이는 것이 이치임을 말하고 있음. ('불'과 '마른 것', '물'과 '촉촉한 것'은 같은 기운을 지님)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으로, 이치상 진실로 필연적인 것이다. 대개 그 상상하는 바에 있어서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사물과 사람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에서 같음. '나'는 일반인을 가리킴. 윤 공이 밤나무를 좋아하는 이유가 됨.이다. 왜 그러한가? 하늘과 땅 사이에 풀이나 나무가 나는 것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나고 자라고 피고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아가는 성질 맺히는 데 어려움과 쉬움, 빠름과 느림이 제각각 다르다. 유독 밝은 만물 보편적으로는 기운이 같으면 같이 움직이지만 세부적인 속성은 각각 다르다는 말 중에서 가장 늦게 난다. 나무를 심기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밤나무는 '유독' 느린 속성을 지님. 밤 성장 속도의 구체적 사례 1. 자라기만 하면 쉽게 성장하며, 잎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쉽게 밤 성장 속도의 구체적 사례 2. 녹음을 이루며, 꽃이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쉽게 풍성해지며, 밤 성장 속도의 구체적 사례 3. 열매가 매우 늦게 열리지만 열리기만 하면 쉽게 거둘 수 있으니, 대개 사 밤 성장 속도의 구체적 사례 4.물이 이지러지고 채워지며 빠지고 더해지는 이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 한쪽 귀동이가 떨어져 없어지다.다.”

▶ **윤 공의 밤나무의 닳은 점**

윤 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윤 공도 밤나무의 성장 속도에 비유할 수 있음. 그때 나이 이미 서른이 넘었다. 그러다가 늦은 나이에 벼슬에 나아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고 말하는 밑거름. 마흔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늦었다고 하였으나 윤 공은 벼슬에 나아가 더욱 충실히 하였다.

### 작품 개관

- **갈래:** 한문 산문(설(說)), 교훈적 수필
  - **성격:** 교훈적·사색적·유추적·설명적
  - **주제:** 자연의 생성 원리를 통해 인간 삶의 성취 과정과 삶의 이치를 깨닫고, 늦은 성취의 가치와 삶의 조화를 긍정함.
  - **특징**
1. 밤나무의 성장 과정과 인물의 삶을 대응시키는 자연물과 인간 삶의 유추 구조를 활용한다.
  2. 인물의 일화를 제시한 뒤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고 이를 삶의 원리로 확장하는 설득적·논리적 전개 방식을 보인다.
  3. 자연과 인간이 동일한 기운에서 비롯된다는 자연-인간 합일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다.
  4. 늦은 성장과 성취의 의미를 강조하며 삶의 과정과 균형을 중시하는 교훈적 성찰을 드러낸다.

### '울정설'의 구조

- 이 글은 타인의 삶에 대한 관찰로 얻은 삶의 이치를 재구성한 글
- 대화의 경험에서 얻은 삶에 대한 통찰

윤 공이 밤나무 숲 근처에 집을 짓고 '울정'이라 함. → 윤 고은 밤나무가 쓰임새가 많다 생각함. → '나'는 윤 공과 밤나무가 같은 기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함.

### 삶의 이치

- 느린 것은 빨라지고 멈춘 것은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함.
- 이지러지면 가득차고 빠지면 더해짐.

- **윤 상군:** 글쓴이의 지인인 윤택을 가리킴. '상군'은 재상을 높여 부르는 말



그러다가 선대 임금께서 먼저 공을 알아보셨는데 크게 쓰이게 되어서는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승진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 중책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윤 공의 속도를 드러내는 구체적 사례: 늦게 관직에 나갔음에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임.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나무와 같은 것이

밤나무의 유사성을 말하는 것임.

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윤 공과 밤나무 모두 '대기만성'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음.

쉽게 된 것이니, 대개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점이 있다.

윤 공의 성취에 대한 비유에 해당함.(유추적 논리를 전개함)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풀과 나무의 뿌리가 흙에 묻혀 있을 때에 그 싹

밤나무와 윤 공에 대한 교질을 바탕으로 한 삶의 이치

이 깊으면 그 갈라져 올라오는 것이 늦고, 갈라져 올라오면 싹이 트고, 싹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가득 차면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그 흐르는 것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면 물이 돌아

흐르고, 돌아 흐르면 못이 되어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

므로 느린 것은 반드시 빨라지고 멈춘 것은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하는 것이

풀과 나무, 샘물의 경우를 통해 일반화된 사고를 전개하고 있음.

다. 그러니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지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물에 나아가 보더라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

다. **▶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지는 이치**

또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촉촉한 곳으로 흐르듯이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같은 기운은 서로를 찾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

일이다. 그렇다면 윤 공의 열달은 곧 밤의 생장(生長)이고 밤을 거두어 간직

지위가 높고 고귀하게 됨.

함은 곧 윤 공이 은퇴하는 것이니, 그 성장함에는 세상을 돕는 도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삶을 수양하는 작용이 있다.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

윤정

를 들어 설(說)을 짓는다.

글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한 글로 마무리 함.

**▶ 밤의 생장 및 수확에서 깨닫는 삶의 이치**

— 백문보, 「윤정설」

※ 윤 상군: 글쓴이의 지인인 윤택을 가리킴. '상군'은 재상을 높이는 말.

## 내용 탐구

### 윤 공과 밤나무의 공통점

시작이 오래걸림.	밤나무	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잎이 늦게 핀.</li> <li>• 꽃이 늦게 맺힘.</li> <li>• 열매가 늦게 열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른 넘어 과거에 합격하고 마흔이 넘어 처음 벼슬에 나아감.</li> </ul>

성취를 빨리 이룸.	밤나무	윤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쉽게 녹음이 짐.</li> <li>• 꽃이 쉽게 풍성한.</li> <li>• 열매를 쉽게 거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루 동안 아홉 번의 승진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됨.</li> </ul>

**삶의 이치**

- 느린 것은 빨라지고 멈춘 것은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함.
- 이지러지면 가득차고 빠지면 더해짐.

### 역설 & 유추 & 일반화

- 역설은 모순성을 지닌 합리적 이치를 지닌 표현으로 모순형용과 논리적 모순이 있다.
- '윤정설'에는 역설적 표현으로 '나'가 얻은 삶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지러지면 가득 차고 빠지면 더해진다.</li> </ul>
표면적	이지러지다 ↔ 가득 차다 빠지다 ↔ 더해지다
이면적	모자람이 있을 때 더해질 수 있음을 강조할 수 있음.

### 설(說)

일반적으로 글쓴이의 체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펼치는 글이고 전반부에서는 경험적 사실을 후반부에서는 글쓴이의 생각, 느낌, 깨달음 등을 풀어 주제를 심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윤 상군(尹相君)이 일찍이 곤강(坤岡) 남쪽에 집터를 마련하였다. 집터 동서쪽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밤나무 정자'라는 뜻으로 '율정(栗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 또 조금 서쪽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하였다. 성안에 있는 주택에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드문데, 윤 공은 집을 사기만 하면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그가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이면 성근 가지가 꽃과 서로 어른거리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으며, 가을이면 밤이 맛이 들어 내 입에 가득 채울 만하며, 겨울이면 껍질을 모아 내 아궁이에 붙을 땀다. 나는 이 때문에 밤나무를 선택한다.”

내가 말했다.

㉔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촉촉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으로, 이치상 진실로 필연적인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바에 있어서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한가? 하늘과 땅 사이에 풀이나 나무가 나는 것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나고 자라고 피고 맺히는 데 어려움과 쉬움, 빠름과 느림이 제각각 다르다. 유독 밤은 만물 중에서 가장 늦게 난다. 나무를 심기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자라기만 하면 쉽게 성장하며, 잎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쉽게 녹음을 이루며, 꽃이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쉽게 풍성해지며, 열매가 매우 늦게 열리지만 열리기만 하면 쉽게 거둘 수 있으니, 대개 ㉕ 사물이 이지러지고 채워지며 빠지고 더해지는 이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윤 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때 나이 이미 서른이 넘었다. 그러다가 마흔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늦었다고 하였으나 윤 공은 벼슬에 나아가 더욱 충실히 하였다.

그러다가 선대 임금께서 먼저 공을 알아보셨는데 크게 쓰이게 되어서는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승진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 중책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쉽게 된 것이니, 대개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점이 있다.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풀과 나무의 뿌리가 흙에 묻혀 있을 때에 그 싹이 깊으면 그 갈라져 올라오는 것이 늦고, 갈라져 올라오면 싹이 트고, 싹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즐거이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가득 차면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그 흐르는 것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면 물이 돌아 흐르고, 돌아 흐르면 못이 되어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느린 것은 반드시 빨라지고 멈춘 것은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지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물에 나아가 보더라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촉촉한 곳으로 흐르듯이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윤 공의 영달은 곧 밤의 성장(生長)이고 밤을 거두어 간직함은 곧 윤 공이 은퇴하는 것이니, 그 성장함에는 세상을 돕는 도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삶을 수양하는 작용이 있다.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설(說)을 짓는다.

### 01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대한 객관적 관찰을 중심으로 경험적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일화를 제시한 뒤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간 삶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자연 현상의 과학적 원인을 분석하여 윤리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④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인물의 공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자연물의 심미적 가치를 강조하며 정서적 감흥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둔다.

### 02 이 글에서 서술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을 벗 삼아 은거하는 삶의 미학과 만족감
- ② 인간의 노력보다 운명이 중요함을 강조.
- ③ 자연의 생성 원리를 통한 인간 삶의 성취 과정
- ④ 자연과 인간의 대립적 관계 인식과 편견
- ⑤ 자연물의 실용적 가치에 대한 비판적 의식과 깨달음

### 03 ㉔의 문백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 현상의 우연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② 인간 욕망의 비합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③ 같은 성질끼리 서로 끌리는 필연성을 드러낸 것이다.
- ④ 자연과 인간의 근본적 차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 ⑤ 인간 의지의 자율성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04 '밤나무'의 속성과 윤 공의 삶을 연결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늦게 자라지만 크게 성장함 → 늦은 나이에 벼슬에 나아감
- ② 꽃과 열매가 늦게 맺힘 → 성취가 뒤늦게 이루어짐
- ③ 쉽게 자라지 않음 → 초기 기반 형성의 어려움
- ④ 열매가 빨리 맺힘 → 빠른 성공과 조기 은퇴
- ⑤ 성장 이후 풍성함 → 크게 쓰임을 받음





05 이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제기 → 반박 → 결론
- ② 자연 묘사 → 감정 고조 → 정서 해소
- ③ 일화 제시 → 이치 설명 → 삶의 의미 확장
- ④ 역사 서술 → 교훈 제시 → 현실 비판
- ⑤ 논박 → 반론 → 절충

06 이 글에 대한 평가를 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물은 모두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모든 현상은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가 존재함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 ③ 사물과 인간 모두 대기만성(大器晚成)형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 ④ 자연과 인간 모두 권선징악(勸善懲惡)의 질서에 순응해야 함을 드러낸 것이다.
- ⑤ 나무도 인간도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결과를 맞을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07 ⑥와 같이 표현한 것의 문맥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의지에 따른 변화이다.
- ② 자연의 순환적 균형 원리이다.
- ③ 사회적 경쟁의 원리이다.
- ④ 인간 삶의 비극성이다.
- ⑤ 자연의 무질서성이다.

08 효용론적 관점에서 이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은 감상의 대상일 뿐 실천적 의미는 없다.
- ② 자연의 이치의 깨달음은 인간 삶의 태도 형성에 기여한다.
- ③ 자연의 아름다움은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④ 자연은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는 수단이자 깨달음의 매개체이다.
- ⑤ 자연은 인간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순환 질서의 상징물이다.

09 이 글에서 화자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윤 공의 삶을 비판적으로 관찰한다.
- ② 자연 현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본다.
- ③ 자연의 이치를 통해 윤 공의 삶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 ④ 윤 공의 선택을 우연으로 본다.
- ⑤ 인간 삶의 무의미함을 강조한다.

10 '밤나무'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무상함과 허무함
- ② 늦은 성취와 충실한 결실
- ③ 인간 욕망의 과잉에 대한 경계
- ④ 자연과 문명의 갈등의 대상
- ⑤ 현실 도피적 삶이 가능한 공간

11 이 글의 결말이 주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앞선 논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 ② 윤 공의 실패를 암시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 ③ 자연과 인간 삶의 대응 관계를 종합하여 의미를 확정한다.
- ④ 자연 묘사를 반복하여 결말의 여운을 남긴다.
- ⑤ 새로운 사건을 도입할 것을 예고하는 역할을 한다.

12 이 글에 대한 감상 평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데 그친 글이다.
- ② 자연에 비유하여 필연성과 과정의 의미를 성찰하게 한다.
- ③ 개인의 영달을 비판하기 위한 풍자적, 비판적 글이다.
- ④ 자연 속 삶의 고독을 강조하며 공존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 ⑤ 사회 제도의 모순과 인재의 역할에 대해 강조한 글이다.

13 본문의 논지에 비추어 판단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늦은 성취는 실패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② 빠른 성취가 반드시 바람직하다.
- ③ 자연의 이치에 따른 삶은 결국 조화를 이룬다.
- ④ 인간의 삶은 자연과 무관하다.
- ⑤ 노력보다 우연이 중요하다.





# 단원 평가 문제(심화형)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 상군(尹相君)이 일찍이 곤강(坤岡) 남쪽에 집터를 마련하였다. 집터 동서쪽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밤나무 정자’라는 뜻으로 ‘율정(栗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 또 조금 서쪽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하였다. 성안에 있는 주택에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드문데, 윤 공은 집을 사기만 하면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그가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A] “봄이면 성근 가지가 꽃과 서로 어긋거리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으며, 가을이면 밤이 맛이 들어 내 입에 가득 채울 만하며, 겨울이면 껍질을 모아 내 아궁이에 불을 댈다. 나는 이 때문에 밤나무를 선택한다.”  
내가 말했다.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촉촉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으로, 이치상 진실로 필연적인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바에 있어서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한가? 하늘과 땅 사이에 풀이나 나무가 나는 것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나고 자라고 피고 맺히는 데 어려움과 쉬움, 빠름과 느림이 제각각 다르다. 유독 밤은 만물 중에서 가장 늦게 난다. 나무를 심기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자라기만 하면 쉽게 성장하며, 잎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쉽게 녹음을 이루며, 꽃이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쉽게 풍성해지며, 열매가 매우 늦게 열리지만 열리기만 하면 쉽게 거둘 수 있으니, 대개 사물이 이지러지고 채워지며 빠지고 더해지는 이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윤 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때 나이 이미 서른이 넘었다. 그러다가 마흔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늦었다고 하였으나 윤 공은 벼슬에 나아가 더욱 충실히 하였다.

그러다가 선대 임금께서 먼저 공을 알아보셨는데 크게 쓰이게 되어서는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승진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 중책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쉽게 된 것이니, 대개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점이 있다.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풀과 나무의 뿌리가 흙에 묻혀 있을 때에 그 싹이 깊으면 그 갈라져 올라오는 것이 늦고, 갈라져 올라오면 싹이 트고, 싹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가득 차면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그 흐르는 것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면 물이 돌아 흐르고, 돌아 흐르면 못이 되어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느린 것은 반드시 빨라지고 멈춘 것은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지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물에 나아가 보더라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촉촉한 곳으로 흐르듯이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윤 공의 영달은 곧 밤의 성장(生長)이고 밤을 거두어 간직함은 곧 윤 공이 은퇴하는 것이니, 그 성장함에는 세상을 돕는 도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삶을 수양하는 작용이 있다.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설(說)을 짓는다.

14 [보기]를 참고하여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적절한 것은?

### 보기

자연과 인간의 행위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설명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자연 현상과 인간 삶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때 자연은 인간 삶의 비유적 장치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원리를 드러내는 실증적 근거로 기능한다.

- ① 밤나무는 인간 삶과 대비되는 자연적 타자이다.
- ② 자연은 인간 삶을 장식하기 위한 심미적 배경에 해당한다.
- ③ 밤나무의 성장 과정은 인간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 ④ 윤 공의 삶은 자연과 무관하게 개인적 노력의 결과이다.
- ⑤ 자연의 이치는 인간의 의지를 부정하기 위해 제시된다.

15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글의 논리 전개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유추적 사고는 두 대상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전제로 하여 한 대상의 속성을 다른 대상의 이해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외형적 유사성이 아니라 생성과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리의 동일성이다.

- ① 밤나무와 윤 공의 관계는 단순한 외형적 유사성에 근거한다.
- ② 밤나무의 성장 속도와 윤 공의 출세 시기가 구조적으로 대응된다.
- ③ 밤나무는 윤 공의 삶과 무관한 자연물이다.
- ④ 밤나무의 열매는 윤 공의 재산을 상징한다.
- ⑤ 자연 묘사는 서정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장치이다.





16 [보기]를 통해 이 글의 ‘느림’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동양적 시간 인식에서 ‘느림’은 결핍이나 지체가 아니라 충분한 축적과 성숙의 과정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늦게 드러나는 결과는 오히려 내적 완성의 표지로 간주되기도 한다.

- ① 느림은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변명으로 제시된다.
- ② 느림은 자연의 비효율성을 드러낸다.
- ③ 느림은 이후의 성취 가능성을 내포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 ④ 느림은 인간 의지의 부족을 의미한다.
- ⑤ 느림은 자연의 우연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17 [보기]를 활용하여 글속에 드러난 세계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자연과 인간을 동일한 질서 속에 놓는 사유에서는 인간의 성취 또한 자연의 변화처럼 일정한 흐름과 균형 속에서 이해된다. 이는 인간 중심적 사고와 구별된다.

- ① 윤 공의 성공은 자연을 극복한 결과이다.
- ② 인간의 성취는 자연의 질서와 무관하다.
- ③ 인간 삶은 자연의 변화 원리와 같은 흐름 속에서 이해된다.
- ④ 자연은 인간 성공의 장애물로 제시된다.
- ⑤ 자연은 인간에게 종속된 대상으로 나타난다

18 글의 흐름을 참고할 때, [A]에 대한 글쓴이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당신은 밤나무의 유용성에만 주목하지만, 사물의 이치는 쓰임 이전의 생성 과정에 있소.
- ② 당신은 밤나무의 늦은 성장을 단점으로 여기지만, 늦음 자체가 곧 자연의 질서이오.
- ③ 당신은 밤나무가 주는 현실적 이익을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인간 삶의 원리와 통한다고 보오.
- ④ 당신은 밤나무의 성장을 개인의 취향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자연과 인간이 다른 존재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오.
- ⑤ 당신은 밤나무를 선택한 이유를 실용성에서 찾지만, 실상 그것은 자연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욕망이오.

19 ㉠에 나타난 글쓴이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려움과 느림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치 있는 경험이 된다.
- ② 어려움과 쉬움, 느림과 빠름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 ③ 느림은 빠름보다 우월한 가치이므로 삶에서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 ④ 빠른 성취는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므로 경계해야 한다.
- ⑤ 어려움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제거될 수 있는 장애 요소에 불과하다

### [서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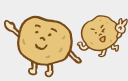
20 다음에 제시된 학생의 대답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내용을 쓰시오.

선생님: 고전 산문에서는 자연 현상의 변화 원리를 인간 삶의 태도에 적용하여 역설적 진리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울정설」에서도 ‘이지러지면 가득 차고 빠지면 더해진다’는 원리를 통해 삶의 태도를 설명하지요. 그렇다면 이 원리를 ‘성취’의 문제에 적용할 때 어떤 역설이 성립할 수 있을까요? 성취란 결과를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학생: “성취를 서두르지 않으면 ( ) .”



# 정답 및 해설



01

[정답] ②  
 (해설) 윤 공의 밤나무 선택과 관직 생활의 일화를 제시한 뒤, 자연의 이치를 근거로 인간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구조이다.  
 [오답 피하기]  
 ① 사실 나열이 아니라 이치의 설명이 중심이다.  
 ③ 과학적 분석이 아니다.  
 ④ 비판적 평가가 아니다.  
 ⑤ 심미적 감흥보다 이치의 설명이 중심이다.

02

[정답] ③  
 (해설) 밤나무의 성장 과정과 윤 공의 삶을 대응시키며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간 삶의 성취와 과정의 의미를 설명한다.  
 [오답 피하기]  
 ① 은거 자체가 중심이 아니다.  
 ② 운명론을 강조하지 않는다.  
 ④ 대립이 아니라 동일한 이치를 말한다.  
 ⑤ 비판이 아니라 긍정적 의미 부여이다.

03

[정답] ③  
 (해설)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아간다는 의미로, 자연과 인간의 선택이 필연적임을 설명한다.  
 [오답 피하기]  
 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② 욕망 비판이 아니다.  
 ④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다.  
 ⑤ 개인 의지보다는 이치가 강조된다.

04

[정답] ④  
 (해설) 밤나무는 열매가 늦게 맺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빠른 성공과 연결되지 않는다.  
 [오답 피하기]  
 본문의 핵심은 '늦되 크게 이루어짐'이다.

05

[정답] ③  
 (해설) 윤 공의 일화를 계기로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고 이를 인간 삶으로 확장한다.  
 [오답 피하기]  
 논쟁 구조나 역사 비판 구조가 아니다.

06

[정답] ③  
 (해설) 늦게 이루되 크게 완성된다는 의미가 밤나무와 윤 공의 삶에 대응된다.  
 [오답 피하기]  
 다른 성어들은 글의 핵심 의미와 직접 관련이 없다.

07

[정답] ②  
 (해설) 자연과 인간 삶에 작용하는 균형과 순환의 원리를 의미한다.  
 [오답 피하기]  
 비극이나 경쟁의 의미가 아니다.

08

[정답] ②  
 (해설)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간 삶의 태도와 가치 판단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효용론적이다.

09

[정답] ③  
 (해설) 화자는 자연의 이치를 들어 윤 공의 삶을 긍정적으로 설명한다.  
 [오답 피하기]  
 비판이나 허무주의적 태도가 아니다

10

[정답] ②  
 (해설) 밤나무는 늦게 자라지만 크게 결실을 맺는 존재로 제시된다.  
 [오답 피하기]  
 무상함이나 갈등의 상징이 아니다.

11

[정답] ③  
 (해설) 밤의 성장과 윤 공의 삶을 대응시키며 논지를 종합한다.  
 [오답 피하기]  
 새로운 사건이나 반전은 없다.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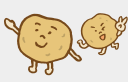
[정답] ②  
 (해설)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인간 삶의 성취 과정과 의미를 성찰하도록 한다.  
 [오답 피하기]  
 풍자나 사회 비판 중심이 아니다.

13

[정답] ③  
 (해설) 글은 자연의 이치에 따른 성장과 성취의 조화를 강조한다.  
 [오답 피하기]  
 본문은 속도보다 과정과 이치를 중시한다



# 정답 및 해설



14

[정답] ③  
 (해설) 글은 자연과 인간을 동일한 이치 아래 놓고 밤나무의 성장 과정을 통해 인간 삶의 성취 과정을 설명한다. 자연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삶의 원리를 드러내는 근거로 제시된다.  
 [오답 피하기]  
 ① 자연과 인간은 대비되지 않는다.  
 ② 심미적 기능이 아니라 인식의 근거이다.  
 ④ 개인 노력만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⑤ 인간 의지의 부정이 아니라 삶의 이치 설명이다.

15

[정답] ②  
 (해설) 밤나무의 늦은 성장과 이후의 풍성한 결실이 윤 공의 늦은 출사와 이후의 성취 과정과 구조적으로 대응한다.  
 [오답 피하기]  
 ① 외형이 아니라 성장 원리의 대응이다.  
 ③ 글 전체 논지를 부정한다.  
 ④ 상징을 물질적 의미로 축소한 해석이다.  
 ⑤ 정서 환기가 목적이 아니다.

16

[정답] ③  
 (해설) 밤나무의 늦은 성장과 윤 공의 늦은 출사는 이후의 풍성한 결실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으로 제시된다.  
 [오답 피하기]  
 ① 같은 느낌을 긍정한다.  
 ② 비효율성 논의가 아니다.  
 ④ 의지 부족과 무관하다.  
 ⑤ 우연이 아니라 이치이다.

17

[정답] ③  
 (해설) 자연과 인간을 동일한 이치로 설명하는 자연-인간 합일적 인식이 글의 핵심이다.  
 [오답 피하기]  
 ① 자연 극복 서사가 아니다.  
 ② 글의 전제를 부정한다.  
 ④ 장애물로 제시되지 않는다.  
 ⑤ 인간 중심적 관점이 아니다.

18

[정답] ③  
 (해설) [A]에서 윤 공은 밤나무의 실용적 장점을 말하지만, 글쓴이는 이를 자연의 이치와 인간 삶의 원리로 확장하여 해석한다. 즉 쓰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삶의 원리로 전환하는 반응이다.  
 [오답 피하기]  
 ① 생성 과정만을 강조하며 쓰임을 배제하는 해석은 본문과 다르다.  
 ② 글쓴이는 늦음을 단순히 자연 질서로만 설명하지 않고 삶의 성취 과정과 연결한다.  
 ④ 자연과 인간의 동일성을 강조하므로 부적절하다.  
 ⑤ 자연 지배 의식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9

[정답] ②  
 (해설) 글쓴이는 어려움·쉬움, 빠름·느림을 대립적 가치로 보지 않고 생성과 변화의 과정 속에서 각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 이는 자연의 순환과 균형의 관점이다.  
 [오답 피하기]  
 ① 극복의 대상이라는 관점은 본문의 균형적 인식과 다르다.  
 ③ 느림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④ 빠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  
 ⑤ 어려움을 제거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20

[정답] 오히려 성취에 더 가까워진다.  
 (해설) 본문의 핵심 논리는 늦음과 부족함이 오히려 총만과 성취로 이어진다는 역설적 구조이다. 따라서 성취를 조급하게 추구하지 않는 태도가 오히려 성취를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